

## 광주 2조2303억·전남 6조3215억 내년 국비 사업 신청

올해보다 각각 1.7%·5% 증가  
예산 반영에 정치권 힘 모아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사업비로 각각 2조2303억원과 6조3215억원을 각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과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현안 사업 예산 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이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223건 2조2303억원을 건의했다. 이는 올해 국비지원 예산 대비 1.7%(380억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중 계속사업은 160건에 1조9827억원이며, 신규사업은 63건에 2476억원이다. 신규사업은 올해 대비 50.9%(835억원) 증가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커넥티드 가전·전자 융합산업 육성 ▲자동차 전장 기능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2018년 예산 목표는 6조321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6조205억원)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복지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266건에 2조8616억원 사업비를 건의했다. 신규사업은 183건에 4331억원, 계속사업은 83건에 2조3885억원이다.

신규사업으로 전남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차세대 에너지신산업(ESS) 생태계 구축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 투입되는 예산만 4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순천·광양시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 장주기 이차전지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구축,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센터 구축 등이 주요 신규 사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 ▲생물자원을 활용한 초미세먼지 집진·저감 기술개발 ▲국립 한국한진 흥원 건립 ▲전라도 천년 정원 조성 ▲농생명 치유산업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사업 등도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전남지역의 미흡한 기반시설 여건으로 인해 수년째 반복 건의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 사회적 접자시설(SOC) 확충 사업도 건의됐다.

각 정부 부처는 2018년 예산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심사를 마친 뒤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실국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는 물론 기재부를 상대로 꾸준히 예산 반영을 설득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앤더슨 기자

## 5·18 때 한국 정부가 1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날 “하루에 100구의 시체 직접 썼다 그 다음날도 100구가깝게 썼다”



죽산보 개방...다시 흐르는 영산강 1일 오후 나주 다시민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수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흰 거품을 내며 하류로 흐르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졌다 >7면

新팔도유람-충북 단양 오토캠핑 >18면

KIA 김선빈의 뜨거웠던 5월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UN본부 5·18 국제 학술대회  
테리 앤더슨 AP통신 기자 증언  
정확한 사망자 수 규명 과제

“정부가 1명이 사망했다는 바로 그날, 하루에만 100구의 시체를 직접 썼다. 그 다음날도 100구 가까운 시체를 썼다.”

5·18 당시 AP통신 기자로 광주를 취재했던 테리 앤더슨(Terry Anderson)씨는 1980년 5월 자신이 목격한 광주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면서 “(당시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전문적 군사작전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5·18기념재단 주관의 5·18국제학술대회에서다.

5·18기념재단이 1일 공개한 5·18국제학술대회 발언록 등에 따르면 앤더슨씨가 당시 택시를 타고 밤길을 걸어 어렵사리 광주에 진입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상자 수 집계였다고 한다. 세계 언론에 정보와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 기자로서 정확한 사상자를 파악하려고 임시 시체안치소, 병원 영안실, 상무관 등을 돌며 단 하루 만에 시체 100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총에 맞거나 동맹이질 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앤더슨씨는 학술대회에서 “광주에서 내가 직접 100구의 시체를 썼다”고 하면서도 그 날씨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5·18

을 취재한 8명의 특파원과 지난 1997년 펴낸 ‘5·18특파원리포트’를 보면 1980년 5월 22일로 추정된다.

당시 책에서 앤더슨씨는 ‘하루동안 100구의 시체를 직접 썼다’고만 밝혔으나, 5·18국제학술대회에선 “그 다음날도 100구 가까운 시체를 직접 썼다”고 언급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5·18 당시 사망자가 165명으로 집계는 됐으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다가를 정부 주도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군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자 수를 규명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앤더슨씨는 학술대회에서 1980년 5월 27일 자신이 코앞에서 목격한 도청진압적 전과 관련 “전문적 군사작전, 전형적 시가지 전방이었다”고 비판했다.

“계엄군이 재진입하는 새벽 관공호텔(금남로 전일빌딩 맞은편) 방의 창을 통해 군의 작전을 볼 수 있었다. 전문적 군사작전이었다. 공수부대는 옥상부터 차례로 도청을 탈환해 나갔다. 몰래 사진을 찍으려다가 격격수의 총격을 받았다. 내가 외국 기자인 줄 알면서도 시격을 한 것이다. 불에 탄 윤산원의 시체도 봤다”

그는 5·18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선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에서 시작됐다. 최근 촛불만행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문대통령 “한반도의 기적 만들겠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12회 제주포럼 개막식 영상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

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함께 이뤄내겠다”며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관련, “전쟁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할 것”이라며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유치원·초·중·고 교원 1만6000명 늘린다

교육부, 국정자문위 업무보고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만6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 증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3000명 가량을 늘리고, 2019~2022년 단계적으로 초등교원 6300명과 중등교원 66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원 증원 문제를 공약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힘쓰고 있고, 고교 학점제·1수업 2교사제·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 증원의 이유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매년 교원 7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주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1수업 2교사제) 등과 관련해서는 교원 증원 규모 등을 추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힐스테이트

현대엔지니어링

### 더할 나위 없는 주거 가치의 완성

# 힐스테이트 본촌

첨단지구, 양산지구, 일곡지구 등의 교통·생활·교육·자연 인프라를 가까이 누리는  
빛고을 광주 최고의 브랜드 파워 아파트 힐스테이트 본촌으로 초대합니다

**힐스테이트 본촌 경품 이벤트**

- 방문객 대상 경품 이벤트
- 경품: 55인치 TV, 공기청정기, 하이브리드 자전거, 태블릿 미서기
- 경품 행사 및 이벤트 장소는 건물주(40)이며, 경품 및 당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안부/경품 중점 시 한가져서 시공문을 드십시오.

**오픈 3일간 선착순 이벤트**

- 대상: 견본주택을 방문하신 고객(선착순 중점)
- 일정: 일별 선착순 300분에게 신라면 5개 중점

**6월 2일 오픈**

64m<sup>2</sup>/68m<sup>2</sup>/84m<sup>2</sup> 총 834세대(일반분양 199세대)

1800-0447

시행 본촌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입무대행 (주)지원산업개발

자금관리 아시아인식(주)

시공 현대엔지니어링